

# “국내 최고茶 가린다”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회’ 7월 17~18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국내 최고 품질의 차를 가리는 ‘제1회 대한민국 차(茶) 품평회’가 오는 7월 17, 18일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그동안 지방차차 단체나 개별 단체가 차 품평회를 개최한 경우는 있지만 차 관련 단체들이 연합해 전국 규모의 차 품평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차 관련 단체, 불교계 대거 참여 품질 평가 객관적 기준 마련 기대

원 등 내로라하는 차 관련 단체들뿐만 아니라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 등 우리 전통 차 문화 형성과 전승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온 불교계도 함께 참여한다.

‘차 품평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연 스님(대흥사 일지암 주지·사진)은 “우리나라 차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품질 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최근 차가 악리적 효능 뿐 아니라 정신적 여유를 갖는 수단으로 각광 받으며 차 인구는

급속도로 늘고 있고, 판매되고 있는 차의 종류만도 200여종이 넘습니다. 하지만 차의 맛과 품질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질 낮은 차를 마시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차의 품질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차 시장의

실질적인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차 관련 문화단체들이 차 품평회 개최에 발 벗고 나선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품평회와 함께 품질경영 전문교육 세미나와 우리 차 산업 발전 대토론회, 국제명차 전시 및 설명회, 대구 및 다화 전시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여연 스님을 만나 품평회의 개최 목적과 기대효과, 품평기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회”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연 스님은 “우리 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차 품평회는 왜 필요한가?  
-현재 국내의 차 공급은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지난 해만 해도 국내 생산량은 약 1950톤 정도인데 수요량은 2950여 톤으로 1천여 톤이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중국산을 비롯한 값싼 외국 차 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일부 차는 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차의 품질경쟁

력 높이는 것이다. 품질이 우수한 제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마련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차의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미 중국은 50여년 전에, 일본만 해도 30여년 전에 차 품평을 시작했다.

## 우수 제품 발굴 통한 경쟁력 강화 마케팅, 생산기반 등에 지원 예정 정보 공유·소비활성·해외홍보 효과

▲우수제품은 어떤 지원을 하게 되나?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는 대량 고정구매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추도록 도울 것이다. 또 ‘대

만 품평회에서는 출품된 차의 모양과 색깔, 향기 그리고 맛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것이다. 또 심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명실상부한 ‘KS’ 제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국 대표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고부가가치의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품평회 개최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차 품평회는 과학적 생산관리방법 및 품질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고품질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차 재배 생산 유통업체들 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인증을 통해 녹차 소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품평회를 시작으로 우리 고유의 차 품평 기준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차를 가리려고, 이를 국제 차 시장에 알리는데 앞장설 것이다.

▲차 품평기준은?  
-차 품평에 있어 중국은 향기를, 일본은 색깔을, 우리나라는 맛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 우리 사찰 차 모임

서울 불광사 다도반

## 졸업없는 평생 배움의 현장



지난해 10월 서울 정동극장에서 열린 차 퍼포먼스 ‘찾잔에 담는 우리소리’에서 불광사 다도반 회원들이 행사시연을 하고 있다.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지난 1994년 11월, 날마다 부처님께 차 한잔이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립된 불광사 다도반은 그동안 차문화 보급과 차를 통한 수행문화 확산에 매진해 왔다.

다도반의 특징은 교육기간이나 커리큘럼, 졸업식, 수료증 등의 형식적인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매년 5월 모집하는 기초반 강좌 3개월을 마치고 나면 그 뒤로는 ‘졸업 없는’ 강좌가 계속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불광사 내 전통차집 다경실에 모여 <듣다송>이나 <다신전>

요일마다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것도 이웃과 차를 나누며 생활 속에서 차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도반 회원들은 동지 때 육법공양을 올리는 동지차례와 가을마다 열리는 차퍼포먼스, 다산문화제 등의 행사 외에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서 요청하는 행사에는 되도록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안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정동극장에서 국악인들과 함께 ‘찾잔에 담긴 우리 소리’ 차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특히

다체절, 외부강사 초청 강의 등 다양한 교육이 이어진다. 우상화(46) 총무는 “굳이 교육기간이나 커리큘럼을 나누지 않는 것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차(茶)이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현재 4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다도반은 매주 일요일 법회 때 다도반을 하고 있다. 김혜영 실장은 “불광사 다도반은 차 생활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를 익히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의 본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매주 일

이 가장에서도 차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김 실장은 오는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계사회’에서 우리 차를 소개하고, 10월에는 정동극장에서 차퍼포먼스를 여는 등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인터뷰

### 김혜영 실장



## 茶 통한 공부 수행 봉사 공통 관심사

“불광사 다도반은 생활 속의 선(禪), 생활 속의 차(茶)를 익히는 수련장입니다.”

다도반 김혜영(57) 실장은 다도반 회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차’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화합도 잘 되고 봉사활동이나 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말한다. “좀 더 많은 사람들

이 가장에서도 차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김 실장은 오는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계사회’에서 우리 차를 소개하고, 10월에는 정동극장에서 차퍼포먼스를 여는 등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다유락, ‘금당다화’ ‘한국의 차문화’ 복간

20여년 전 발간됐던 차 문화 관련 서적 두 권이 복간됐다. 최규용(1903~2002) 선생의 <금당다화(錦堂茶話)>와 윤학 스님(1934~1981)의 <한국의 차문화>가 바로 그것.

대흥사 일지암 주지 여연 스님과 동방차 문화연구회 박희준 회장, 도서출판 이문아침이 펴내는 ‘다유락 선고다인 총서’는 근대 이후 우리 차문화 이론을 정리하는데

기여한 1세대 다인들의 대표 다서를 선별해 복간하는 시리즈물이다.

1978년 발행된 <금당다화>는 해방 이후 차문화 확산운동에 앞장섰던 금당 최규용의 우리차 연구서다. 이 책에는 우리 차의 역사와 문화작품, 초의선사 유적 기행문, 우리나라 최초의 차 상품 등 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또한 <다신전>의 원문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한국의 차문화>는 스님이자 문화평론가인 윤학 스님이 1981년 펴낸 책으로, 우리 차 문화 운동이 고조되던 시기에 ‘우리차 바로 알기’를 기치로 쏘아진 것이다. 스님은 우리 차문화가 그 설자리를 잃어버린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든다. 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생산 맛이 좋고, 송농과 담배, 술 등을 즐기는 풍조가 만연했으며, 외적으로는 유교가 불교를 탄압하면서 사원에 대한 차의 공출이 과도해져 차나무를 베어버리는 일이 성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일본의 다도로 우리 차문화가 왜곡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 다법(茶法)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지금 드시고 있는 보이차는 어떠십니까? 고급 보이차와 좋은 찻그릇을 만날 수 있는 곳



보이차의 품격이 다른 茶인들이 즐겨 찾는

## 茶友茗家

고급보이차 전문(광운조기,인급,호급차)  
고급 자사호(공예사,고급공예사급)  
고급 다관 및 다완  
녹차,청차,말차  
패독 다반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3호선주엽역 3번출구  
(그랜드백화점건너편)  
0311911-1044  
011-307-6620  
e-mail : hajun2000@dreamwiz.com  
\* 방문하시면 언제나 좋은 보이차 시연이 가능합니다

## 스님 불자님께 드리는 편지 신제품 식물성 양초

실용신안특허 0293571호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저희 삼환양초에서 식물성 양초를 개발(실용신안특허) 공급합니다. 지금까지 양초는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 왁스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양초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그을음, 냄새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심하던차, 동남아 모처에서 생산하는 팜(식물성 아자알메)왁스 양초를 만들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내 100% 식물성 양초를 만들 수 있도록 삼환양초 가족일동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스님, 불자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기다립니다.

### “이제는 건강을 생각하여 양초도 선별하며 사용할 때입니다.”

#### ◆ 선진국 소비자들의 양초선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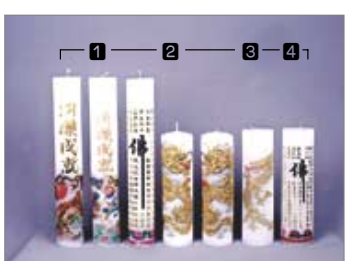
- 1. 심지가 면사로 되어있는지<국내제품 면사로 제조>
- 2. 원료가 식물성 인가

\* 미국, 구라파 등지에서는 콩, 옥수수 등 식물성으로 만든 양초 선별사용



#### ▶ 식물성 양초의 특징

- 그을음이 없어 실내공기정화에 도움을 준다.
- 양초 연소시 발생하는 냄새가 적다. (거의 없음)
- 양초 연소시간이 일반양초보다 약 20 ~ 30% 길어진다.



- ① 전사지양초(호랑이, 용, 반야심경) 지름 7.5cm x 45cm
- ② 방울(용이마주보고 있음) 지름 8.3cm x 30cm
- ③ (전사지)용 - 지름 9.2cm x 31cm
- ④ (전사지)반야심경 - 지름 9.2cm x 31cm



- ⑤ 원기둥 양초 지름 7.4cm x 29cm 전사지, 반야심경, 연화, 용, 호랑이, 무지개, 금박, 호랑이, 용

상기제품의 모든 양초를 만드는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제품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제품설명서를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